

油價安定에 미치는 備蓄의 효과

— 政府備蓄을 중심으로 —

세계 經濟頂上 會議가 열릴 때마다 석유비축 문제 특히 美國의 전략적 석유비축량에 대한 管理 및 운용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곤 했다. 지난 런던 정상회의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폐막성명에서 石油危機 발생시 재고비축량 방출에 대한 협조활동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발표를 하였다.

그후 IEA의 몇몇 회원국들은 비공식 비밀회담을 거쳐 지난 7월 11일 IEA 理事會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회의에서의 주요 논제는 비상비축물량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집중되었으며, 美國의 對유럽 방출에 대해 많은 비난과 논쟁이 있었다. 日本과 西獨은 이와 같은 방출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東獨은 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다.

페르시아灣 전쟁에 있어서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까지는 국제석유 시장의 油價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石油의 흐름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석유소비국들은 이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의 계획은 석유위기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전략비축량을 방출한다는 소위 제 1차 방어선 전략 개념으로 지난 10년간 위기관리 대안의 주류를 이루어온 내용, 즉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후에 마지막으로 전략비축량을 방출시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戰略的 석유비축량이 증가됨에 따라 석유소비국들이 석유공급 중단사태가 발발할 경우에 비축량을 가지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1981년 1월 레이건 美행정부가 출범할 당시 美國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에게 호감을 끌어 왔다. 3년이 지난 지금 美國의 외교관리들은 유럽제국 및 日本의 보다 더 일관성 있는 협조를 얻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진다면 전략비축량의 효율적인 방출운용으로 세계시장에 중·소 규모의 공급중단이 발생한다해도 油價에 대폭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비축석유물량을 유효적절하게 방출·배분 하느냐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IEA의 관계자들은 1973년 위기때 그들의 전임자들이 부딪혔던 것과 똑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1973년과 다른 점은 정부비축재고가 시장에 방출될 수 있을 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며, 現物市場의 유가는 공급부족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대응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축물량 구입으로 현물가격 상승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시에는 소규모 그것도

단시일간의 공급 중단이었는데도 OPEC 產油國들이 주동이 되어 現物市場의 유가를 폭등시켰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유발된 공급중단 사태때에는 이런 전철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임의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민간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80년 10월 임의 방출가능 민간재고량은 약 8억배럴이었는데 반해 1978년 10월의 그것은 4억배럴 정도가 고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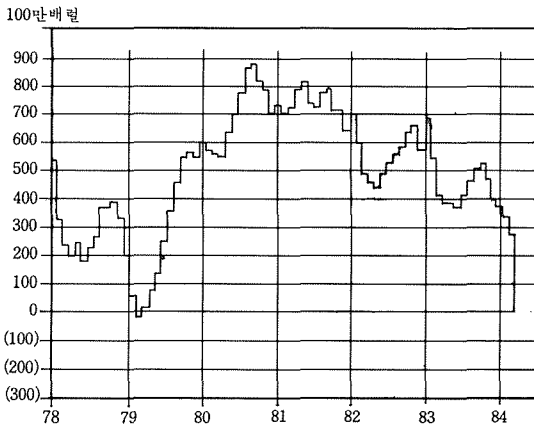
매년 10월 在庫는 동절기 수요에 대비해서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이 상례이지만, 어쨌든 1978년과 1980년의 차이는 대단히 컸다. 1979년 초 석유회사들과 소비자들은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고, 또 정부의 비축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불안감 해소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재고비축에 너무 열을 올려 결과적으로 現物 원유값만 폭등시켰다. 1980년 가을에는 재고비축활동은 전혀 없었으며, 現物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1979년에는, 73년의 재고비축 부족으로 쓰라린 경험을 한 소비국들과 石油會社들이 비축 활동에 열을 올려 결과적으로 油價만 폭등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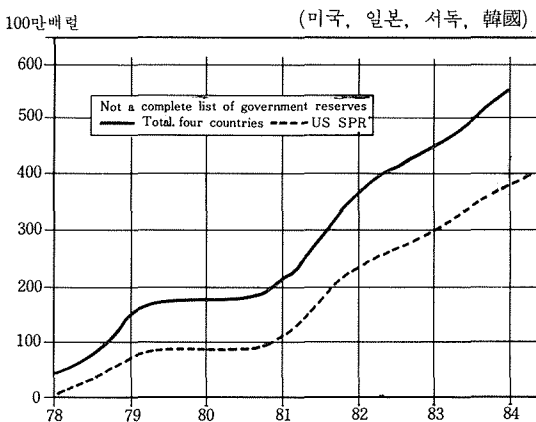
이와 같이 민간재고가 풍부할 때보다는 부족할 때에 공급불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더욱 민감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현재 민간비축량은 또 다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정부비축량은 석유 사상 최대수준에 달해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 조사한 美國·日本·西獨 및 韓國의 전체 정부비축 재고는 5억 6천만배럴 수준에 와 있다. 세계전체의 정부비축재고는 6억 5천만-7억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각국별로 정부 비축량을 보면, 美國이 4억배럴, 日本이 9천100만배럴, 西獨이 6천만배럴이며, 기타 스웨덴,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및 韓國 등의 국가들이 소비량에 비해 많은 비축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表-1〉 세계 민간석유 비축량 변동



〈表-2〉 4개국 정부비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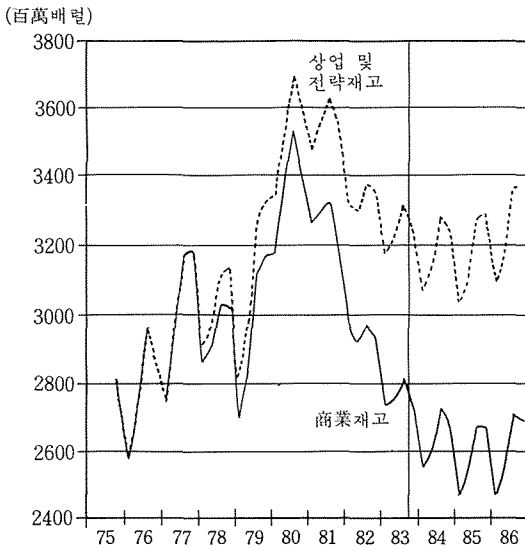


비축물량방출시 유가에 큰 영향

1980년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커다란 변화의 하나는 1983년 3월 OPEC런던 총회에서 公示價格의 5달러 인하를 생각할 수 있다. 그와 같이 OPEC가 油價인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대량의 재고방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15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축재고 변화량을 보면, 지난해 2월과 3월, 이들 그룹의 재고방출량은 산유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하루 450~470만 배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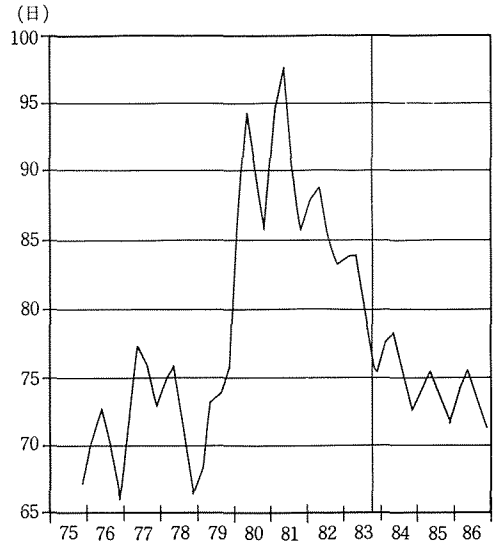
민간비축 물량이 국제 석유시장에 흘러들어가게 되면 시장상황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現物市場 油價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979년의 油價인상과 1983년의 油價인하는 이러한 예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충분한 재고비축을 가지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정부 비축량은 油價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

〈表-3〉 OECD 石油在庫推移



〈資料〉 DRI, 1983-84 Winter

〈表-4〉 OECD 商業的 石油在庫日數*



註：* 前分期消費基準 在庫日數評價

〈資料〉 DRI, 1983-84 Winter

사할 수 있을 것이다. 1979년에도 비축량이 충분하여 하루 수백만 배럴 정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油價가 그렇게 폭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石油政策을 수행하는데 새로운 技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비상사태시 석유 비축량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 관리들은 물론 美國 및 西獨의 시장 관계자들까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석유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비상시 비축량의 사용방법

첫째, 美國·日本·西獨등 주요국가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들의 보유 비축량을 과연 얼마나 시장에 방출해야 할 것인가? 美國의 전략적 석유 비축량(SPR)의 예정 방출량은 하루 200만 배럴 이상이고, 日本의 JNOC(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의 방출량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해상의 유유탱커에 상당한 양을 비축하고 있으므로 방출량은 대단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정부의 비축원유 방출량만 해도 하루 수백만

배럴은 충분하기 때문에 油價안정에 무시못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재고를 방출해서 시장가격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은 틀림없다.

둘째, 유사시에 정부가 즉각 시장에 在庫放出을 할 수 있고, 또 주요국정부가 재고방출 과업에 눈부신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하한 다각적 협조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 재고방출을 둘러싼 정치 싸움은 상당히 살벌할 것이다. 지난 7월 IEA가 발표한 위기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은 개략적인 면만 다루었을뿐 상세한 계획은 입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이익을 외면한 협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셋째, 정부 비축량을 시장에 방출할 경우 매각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현재 美國은 국내에 방출할 경우 경매에 붙여 매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국제시장에 방출할 경우가 문제이다. 또 이와 같은 美國의 계획은 산유국들에 의해 보복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다시 말해 경매의 결과 現物市場의 원유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분배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위험도 아울러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表-5〉日本の石油비축 추이

(單位: 100만배럴)

회계연도	구분		정부부문		
	민간부문	물 량	일 수	물 량	일 수
1976	339	77.5	—	—	
1977	373	82.0	—	—	
1978	367	80.8	33	7.2	
1979	404	87.8	33	7.2	
1980	416	90.3	56	9.9	
1981	498	101.2	66	16.7	
1982	365	99.1	73	19.9	
1983	337	98.9	75	21.9	
1984. 8	—	—	91	27.0	

〈資料〉 석유자료 월보

〈表-6〉美国의石油비축량 추이

(單位: 100만배럴)

연도별	원 유	제 품	計	전략비축
1980	380	837	1,317	107.8
1981. 12	366	891	1,257	222.9
1982. 12	375	841	1,220	235.0
1983. 7	346	735	1,081	341
1984. 7	—	—	—	400

비축은 공급안정에 공헌

비축문제에 관해서 갖가지 분석을 해 보았지만, 美

國·日本 및 西獨정부는 석유비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것에 부응하여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응분의 代價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과 관리문제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비축계획의 목적이 수년동안 정립되지 못했었다. 만일 지난 런던 정상회의에 참석한 경제정상들의 비축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보았다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경제혼란의 방지 내지 질서유지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재고비축의 주요목적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갑작스럽고 대폭적인 油價인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비축량의 일부는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여야 하며 유사시는 즉각적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비축관리를 해야 한다.

1979—1980년의 대폭적인 油價인상으로 석유소비국이든 產油국이든간에 타격을 받을 이유가 사실상 없었다. 재고비축활동이 油價에 인상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소비국들은 물량중단에 대해 효과적인 공급측면의 대응조치로 타격을 면할 수도 있었다. 현재라면 그와 같은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석유의 공급중단에 대해 비축물량의 방출에 의한 대응조치를 취한다면 석유 소비국들은 석유시장의 질서유지에 더욱 건설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에너지의 흐름과 경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주간석유에너지정보〉

職務에는 본분을,
生活에는 분수를